

# '현재'를 보세요 '지금' 즐기세요



유현이 대표

유현이·김동욱 부부, 금남로 가구 거리에 갤러리 '지금' 오픈

2개층 갤러리·카페...박태후·백준선 등 28명 참여 29일~9월30일 개관전

에 맑은머리김동욱신경과를 오픈, 남편을 도와 함께 병원 운영을 하며 다시 '그 거리'로 돌아왔다. 부부는 그림을 좋아해 병원에 밝고 따뜻한 감성의 그림 6~7점씩을 걸어두고는 하는데 환자들이 참 좋아했다.

"언젠가 환자 한분이 그림을 몇시간씩 바라보시던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그림을 참 오래 보시네요' 했더니 다양한 그림을 보니 재미있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편하게 삶의 고민을 잠깐 잊어버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사람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다, 그 역할을 그림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때부터 생각했죠."

언젠가는 작은 갤러리를 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상 했는데 건물은 매입하면서 시간표가 빨라졌고, 세를 내 주면 관리도 편하고 수익도 나겠지만 과감히 갤러리 오픈을 결정했다.

병원 인근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인근엔 보험회사와 은행, 콜센터가 많아 이제 막 취업 전선에 나온 젊은 텔레마케터들이 점심 시간이면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 또 광주고용복지센터에 들르는 실업자나 구직자들이 바빠 움직이는 모습도 자주 보게된다.

"갤러리 이름 '지금'은 모두 힘든 삶을 살다보니 '과거'를 자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잊고 지내는 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들어 잠시만이라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잊고 '지금'을 즐기라는 의미를 담아 지었어요. 직장인들이나 은행 일 보러 오시는 분들,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들러 위로받고 가는 따뜻한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층과 지하 1층은 각각 48평 규모다. 1층은 갤러리와 카페로, 지하는 오토족 전시공간으로 운영된다. 카페는 작품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테이블 3개만 뒀다. 카페를 만든 이유도 갤러리 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갤러리는 그룹 기획전·초대전·대관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신창우 작가가 갤러리 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찬란한 순간'을 주제로 열리는 개관전(29일~9월30일)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28명이 참여해 갤러리 개관을 축하한다. 강남구·강은·고근호·김종경·김해성·노여운·문명호·박태후·백준선·설박·손봉채·송필용·오경규·이규웅·이이남·최재영·주홍 작가 등이다.

이날 오프닝에서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승규와 성악가 4명이 함께 공연을 진행한다. 유대표는 현재 2층 사무실 임대 기간이 마무리되면 지역의 문화 기획자들과 함께 활용방안을 모색해 볼 생각이다. 개관 시간 월~토 오전 11시~오후 5시(일요일·공휴일 휴무). 개관 행사는 29일 오후 6시30분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광주시민인문학, 글로벌 인문학 강좌

9월2일~11월25일, 이항준 박사 첫 강의

세계는 바야흐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세계화가 국경 개념을 무너뜨리는 오늘날, 역설적으로 뚜렷한 지방색이 세계를 리드하는 시대이다. 호남정신을 탐구하며 현대 호남인들의 활약상을 토대로 글로벌한 호남을 상상해보는 인문학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항준 박사

광주시민인문학이 '글로벌(global) 인문학-호남의 걸을 만나다'를 주제로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매주 목요일, 세션4는 금요일)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강의를 연다.

세션1 '호남의 철학·고봉의 기대승의 일원론'(9월)은 이항준(한국유학) 박사가 강의를 한다. 이 박사는 '16세기는 호남에게 무엇이었나', '한국성리학의 맞수, 기대승과 이항', '따뜻함이 유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세션2 '호남의 문학-마지널(marginal) 공간으로서의 한강 소설'(10월)은 명혜영(문예비평) 박사가 진행한다. 명 박사는 '한 없이 '흰' 것들', '언어의 침묵과 '희랍어 시간', '직관으로 읽는 '소년이 온다''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세션3 '호남의 사회 역사-80년이 쓰여진 민주주의'(11월)는 김봉국(한국현대사) 박사가 진행한다. '로컬에서 바라본 지역의 근대화', '유신과 5월의 역사', '로컬에서 바라본 6월 항쟁', '분권시대 호남의 재탄생' 등 호남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 등을 강의한다.

마지막 세션4는 '인문특강-나는 호남인이다'(11월)를 주제로 각기 4명의 강사가 저마다의 시각으로 호남을 이야기한다. '로컬문화-조규철 화백과 함께'(명혜영), '체험주의와 고봉의 칠정'(서명원), '호남의 일상을 찾아서'(박성천), '지역 청년시인 '로컬'을 말하다'(김정우)가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 금남로 5가 구의 거리와 수창초 일대는 한 때 변화가 었지만 지금은 누문동 재개발 등으로 사람들이 떠나고 빈 가게가 늘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삭막했던 이 거리에 예술 향기 가득한 갤러리가 문을 연다. 오는 29일 개관전을 갖는 갤러리 '지금'(광주시 북구 금남로 125)이다. 25일 오전 방문한 갤러리는 꽤 널찍했다. 하얀 벽면에 짙은 초록으로 포인트를 둔 실내 공간이 인상적이다. 무엇보다 넓게 난 유리창 덕에 개방성이 돋보여 길을 걷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낸다.

갤러리가 문을 연 곳은 교보생명 맞은 편에 자리잡은 건물이다. 25년 전 지어져 오랫동안 이산부인과가 진료하던 곳이고 이후 가구점 김석원갤러리가 영업을 했었다. 최근 1년 가까이 비어 있던 공간을 매입해 임대내내 내주지 않고 '갤러리'를 오픈한 이는 유현이·김동욱 부부라 아내 유씨가 대표를 맡았다.

유대표는수창초등학교를 졸업한 광주 토박이로 갤러리가 들어선 이곳 일대는 그녀의 어릴 적 놀이터이자 온갖 추억이 쌓여있는 곳이다. 그녀는 6년전, 조선대의대에 근무하던 남편이 교보빌딩



오건규 작 '향원익향'

◀29일 광주시 금남로 5가에 개관하는 갤러리 '지금'

## 한땀 한땀 '꽃피우다' 김월숙 전, 26일~9월6일 가톨릭대평생교육원 현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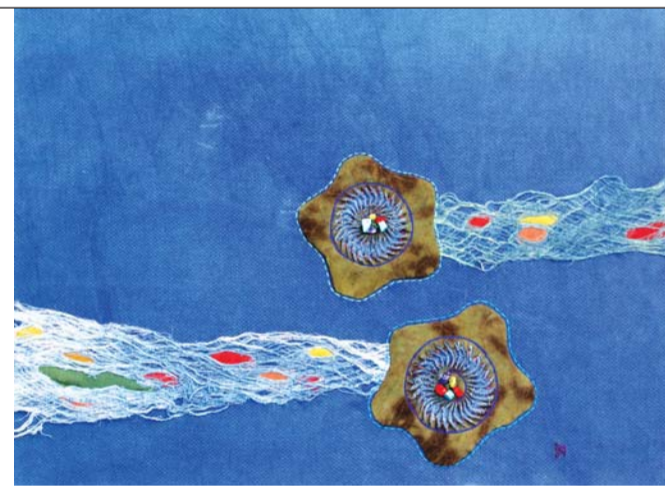
쪽물과 감물로 염색한 천에 한지와 비즈를 집적시켜 작업하는 김월숙 작가 섬유조형전이 26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광주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현 갤러리에서 열린다.

'천의 향기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자연에서 얻어진 쪽, 감, 소목, 치자 등의 식물을 면, 실크 천에 염색한 후 후처리 기법을 통해 싱그럽고 향기로운 '꽃'을 소재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염색 천을 여러 장 겹쳐 재봉한 후 자른 천을 뒤집어 작가 특유의 손바느질로 천에 향기를 불어넣어 꽃을 피웠다. 또한 참빗, 부채, 도자기의 문양을 한 땀 한 땀 꿰매고 이를 통해 꽃처럼 아름다운 행복을 이야기를 전달하려 했다.

'부채꽃'은 녹음이 우거진 산에 올라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듯한 풍류를 표현했고, '8월의 꽃'은 무더위에 피어나는 이름 모를 꽃이 메말랐던 감성을 되살아나게 한 작품이다. 그 밖에 '바람꽃', '시계꽃', '하늘꽃', '꽃은 피고 지고' 등 25여점의 다양한 섬유 작품들을 선보인다.

조선대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삼성전자 광주기전 매장 디스플레이어로 일했으며 현재 천연염색지도사, 한국공예가협회, 한국가톨릭미술협회, 광주가톨릭미술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흘날리는 꽃'

은암미술관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31일, 김현덕 초청 쪽염색 강의·체험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2019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빛고를 힐링 나들이·미술관 탐방' 8월 행사를 오는 31일 오후 3시 은암미술관 레지던스(광주시 동구 경양로 277번 길 3-1)에서 진행한다.



김현덕 작가

'전통 쪽염색의 이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천연염색 김현덕 작가를 초청해 기초강의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김 작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쪽염색이 지금은 왜 몇몇만 할 수 있는 기술로 닫혀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1부에서는 쪽염색에 쓰이는 염료인 니람, 스크 모, 인도남(印度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의 쪽염색이야기를 알아본다. 2부에서는 제공되는 손수건을 전통발효 쪽에 직접 담그고 염색 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미은 기자 mekim@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특별 월 회원 모집**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개인 (월) ₩ 300,000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 10% 할인
- 객실 이용시 .....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